

백화점·유통가, 5월 가정의 달 특수 '옛말'

김영란법 여파 스승의 날 특수 '제로' 카네이션 거래량 23% 줄어 경기침체 영향 광주신세계·롯데백 5월 매출 한자리수 상승

경기침체와 '김영란법'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 여파로 유통업계의 5월 '가정의 달' 특수도 옛말이 됐다.

앞아진 지갑 사정에 선물용 구매 특수를 누렸던 광주지역 백화점 매출 신장률은 한 자릿수에 그쳤고 카네이션 거래량도 23% 떨어졌다.

가정의 달을 대표하는 '어린이날'·'어버이날'·'스승의 날'을 맞은 유통계의 표정은 각각 달랐다.

14일 (주)광주신세계와 롯데백화점 광주점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13일까지 매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각각 5.0%, 5.9% 증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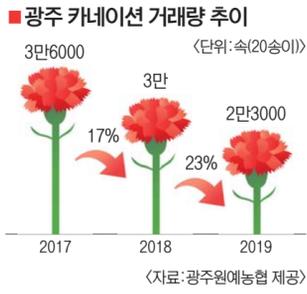
백화점 업계가 5월 중 가장 크게 웃을 수 있었던 날은 어린이날이었다. 광주신세계와 롯데백화점의 아동 관련 상품은 지난해

에 비해 20.6%, 10.9% 올랐다. '어버이날' 대표 선물로 꼽히는 골프 의류(22%), 명품(21%), 스포츠 의류(19.7%), 화장품(8%), 해외 의류(5.1%) 등은 백화점 별로 무난한 매출을 올렸다.

하지만 건강(-15.6%), 구두(-3.2%), 핸드백(-18.2%) 등 전통적인 가정의 달 선물은 오히려 판매가 줄어 달라진 소비상을 반영했다.

광주신세계 관계자는 "스승의 날 특수는 이미 '제로' (0)가 된지 오래라 백화점 업계에서도 별다른 기획전을 진행하지 않고 있다"며 "어린이날 매출은 예년에 비해 조금 올랐지만 어버이 날의 경우 가장 좋은 선물은 '돈'이라는 인식이 퍼져서 인지 평이한 매출 수준을 보였다"고 말했다.

달라진 스승의 날 풍경에 '감사', '존경'



의 꽃말을 지닌 카네이션의 위상도 예전같지 않아졌다.

광주원에농협 화훼공판장에 따르면 최근 3년 간 5월1일부터 13일까지 이곳에서 거래된 카네이션 물량은 지난해 2017년 3만 6000속(20송이)에서 지난해 같은 기간 3만 속으로 17% 감소했다. 올해는 23%의 감소폭을 보이며 거래량은 2만3000속으로 떨어졌다.

카네이션 거래량이 급감한 데는 '김영란법' 영향이 한 몫 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2016년 학생 개인이 교사에게 생화 카네이션을 선물하는 것은 안 된다는 해석을 내렸다.

꽃 한송이 선물에도 법규를 따져야 하는 탓에 광주 5개-전남 81개 초·중·고교는 이미 15일 휴교할 계획을 세웠다.

카네이션 거래량은 해마다 줄고 있지만 가격은 오히려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화훼공판장 경매시세를 보면 5월1-13일 기준 카네이션 평균가는 1속당 2017년 4402원, 2018년 5194원, 올해 6693원으로 3년 새 52% 급증했다. 광주지역 역시 올해 5500-5600원의 평균가를 보여 지난해 보다 40% 가량 올랐다.

김성주 광주원에농협 경매사는 "날씨가 일찍 따뜻해진 탓에 2-3월 카네이션 생산량이 늘어나 4-5월은 오히려 공급량이 줄었다"며 "김영란법의 여파로 카네이션 생화 소비자가 줄어 5월이면 활기가 돌던 공판장 분위기가 예년 같지 않다"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2081.84 (+2.83)	↓ 금리(국고채 3년) 1.71 (-0.01)
↑ 코스닥 710.16 (+1.36)	↑ 환율(USD) 1189.40 (+1.90)

트럼프 '협상 성공 예감' 발언에 코스피 소폭 올라

코스닥은 옛세만에 상승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 양상에 따라 세계 금융시장이 출렁이는 가운데 코스피는 14일 그나마 상승세로 마감했다. 이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2.83포인트(0.14%) 오른 2081.84에 장을 마쳤다.

지수는 전장보다 18.77포인트(0.90%) 내린 2060.24로 출발해 장중 한때 2056.74까지 떨어졌으나 시간이 흐르면서 우상향 곡선을 그려 상승 전환에 성공했다. 장중 저점은 지난 1월9일 (2034.19) 이후 약 4개월 만의 최저치였다.

서상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중 무역협상의 성공 가능성을 언급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증시가 낙폭을 줄이는 데 성공했다"고 설명했다.

코스닥지수는 전장보다 1.36포인트(0.19%) 오른 710.16으로 종료했다. 6거래일 만의 강세 마감이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장보다 1.9원 오른 달러당 1189.4원에 마감했다.

/연합뉴스



한전 광주전남본부, 5·18 묘지 환경정화 활동

한국전력공사 광주전남본부(본부장 임철원) 사회봉사단을 비롯한 직원들은 제39주년 5·18 광주 민주화운동을 기리기 위해 국립 5·18 민주묘지를 방문 참배하고 환경정화 봉사활동을 펼쳤다고 14일 밝혔다. (사진) 임철원 한전 광주전남본부장을 비롯한 한전 광주전남본부 봉사단은 이날 추모

묘에서 헌화·분향하고, 묘비와 영정 곳곳을 깨끗이 닦고 잡초와 쓰레기 제거 등 환경정화 봉사활동을 펼치고 추모했다. 임철원 본부장은 "광주·전남 지역에서 전개된 5·18 민주화운동의 정신을 소중히 여기며 국가와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하는 한전 광주전남본부가 되겠다"고 말했다. /최재호 기자 lion@kwangju.co.kr

농협 전남본부 '상호금융 50주년 사업 추진 전략회의'

농촌지역에 만연된 악성 고리채를 해소하기 위해 농협이 시작한 상호금융이 올해 50주년을 맞았다.

농협 전남지역본부는 14일까지 이틀 동안 보성 다비치콘도에서 상호금융 50주년을 맞아 '2019년 상호금융 사업추진 전략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는 지역 농·축협 신용상무 및 지점장과 시군 농정지원담당 등 500여명이 참석했다. 상호금융은 농어가목돈마련저축, 농가부채경감대책 등 다양한 사업을 통해 농업인들의 실익증대에 기여를 해왔다. 1969년 150개 농협에서 시작해 1976년 전국 농협이 전면 실시하게 됐다. 참석자들은 사업추진 실천결의 대회를 열고 상호금융 주요사업 중점추진 방향을 논의했다. 또 이틀에 걸쳐 소성모 상호금융 대표이사와 이충노 해피리프 교육원 원장의 강의를 들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롯데백화점 광주점, 전남 30여 농가와 직거래...상생 강화



박상영(오른쪽) 롯데백화점 광주점장이 납품업체의 화순군 도곡면 파프리카 농장을 방문해 수확된 파프리카를 살펴보고 있다. <롯데백화점 광주점 제공>

"요즘 같은 경기 불황에도 안정적인 소득을 창출할 수 있어 다행입니다."

화순군 도곡면에서 3000평(9920㎡) 규모 파프리카 농장을 운영하고 있는 진모(61)씨의 말이다. 3년 동안 매년 10t 이상 물량을 롯데백화점 광주점에 납품해 온 진씨는 롯데백화점 전주점과 대전점 등 전국으로도 판로를 확대했다.

롯데백화점 광주점이 전남 농가와 상생 행보를 강화해 나가고 있다. 롯데백화점 광주점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16만 가구 규모 전남 농·어가의 판로 확대와 소비 촉진을 적극적으로 실행하고 있다.

롯데백화점 광주점은 지난 3월 완도군과 '완도 특산물 소비촉진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완도 수산물 대전'을 열어 본격적인 상생 행보를 시작했다. 이어 '담양 딸기 기획전', '흑산도 홍어 산지 직송전' 등 지역 특산물 소비촉진 행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특히 지역 유통업체 최초로 롯데백화점 광주점 식품관에 완도 특산물 전용관을 운영하는 등 지역 교류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박상영 롯데백화점 광주점장은 "올해 지역 농산물의 직거래 계약 농가는 지난해에 비해 50% 늘어난 약 30여 개 농가에 달한다"면서 "지역 농가와의 상생 협력을 확대해 지역과 더불어 성장할 수 있는 롯데백화점이 되겠다"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광주 조성은 무진기연 대표 은탑산업훈장

광주지역 기업인 조성은(59·사진) 주식회사 무진기연 대표이사가 '대한민국 중소기업인 대회'에서 은탑산업훈장을 수상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4일 서울에서 중소기업업중앙회에서 30번째 중소기업인 대회를 열고 일자리 창출 유공자 포상 등을 진행

했다.

"활력 중소기업! 함께 잘 사는 나라"라는 주제를 내건 이번 대회에는 업종별 중소·벤처기업 대표와 유공자 및 유관단체 등 420여명이 참석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이근길 (주)서한탄 타인 대표 등 중소기업인 대표 5명에 금탑



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중기부는 "조 대표는 에너지플랜트 및

원자력 기술개발의 원가절감, 품질 보증시스템 도입 등을 통해 공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했다"며 "지속적인 연구개발 투자를 통해 2000만 달러 이상 수입대체효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올해 대회에서는 산업훈장 15점, 산업포장 13점, 대통령 표창 31점, 국무총리 표창 32점, 장·차관급 표창 288점 등 총 379점이 수여됐다.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주)금호주택

광주광역시 서구 경영로 17번길 9 거승빌딩

임대 문의 (062)382-8879

가족회사

(주)송도건설 / (주)금호에너지 / (주)송도 / (유)송산

광주사업지

- 동 구 | 자산동, 소태동
- 서 구 | 금호동, 풍암동, 치평동, 농성동
- 남 구 | 주월동
- 북 구 | 신왕동, 연제동, 운암동
- 광산구 | 수완동, 신창동, 운남동, 월계동, 산월동, 소촌동, 송정동, 도산동

전국사업지

- 서울특별시 | 잠실동
- 부산광역시 | 광안동
- 제주특별자치도 | 노형동
- 경기도 안성시 | 중리동
- 전남 목포시
- 전남 화순군
- 전남 담양군
- 전북 완주군